

한자병용 불교계 의견

문화관광부가 9일 전통문화의 이해와 전승, 발전 및 한자문화권 국가간의 교류와 관광 증대에 효율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한자 병용(併用)을 추진키로 한데 대해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불교사상 이해에도 도움

한자는 우리가 사용해 온 엄청난 국어의 한부분이다. 불교의 경우 한자와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

한자를 배우는 것은 과학적인 사고, 어휘력의 이해를 크게 증진시킬 수 있는 장점도 지니고 있다.

한자문명 국제화 역할

세계의 3분의 1이 한자문화권에 속해 있다. 그럼에도 그동안 한자의 중요성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했다.

한글 우수성 세계가 인정

기본적으로는 '한글전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동시에 '한자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토착화되어 한글로 표현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어휘가 상당수 있다. 이것을 굳이 한글로 바꾸어 사용할 수는 없지만 한층 의미를 알고 사용하는 것과 모르고 사용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한자병용 교육효과 높다

그동안 교육현장에서는 특정 단어를 한글과 한자로 병용·표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과학계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경우 그러할 바를 더욱 간절했다.

한자병용은 지식 고급화

한자 문화권에 있으면서 한문을 쓰지 않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언어는 문화와 지식을 고급화시키는 중요한 도구다.

잘못된 교육청 공문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매년 4월 일선 중·고등학교 교로 발송하는 '청소년 1학생 1단체 가입 권유' 공문이 청소년 종교활동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오종욱 (취재 1부 기자)

청소년 1학생 1단체 가입은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일선 교육기관이 학생들에게 건전단체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청소년 교육·포교 관계자들은 "이 공문이 오용(誤用)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학생들간의 불화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종교계를 자체를 꺼리는 국립 중·고등학교의 풍토에서 교육청이 언급한 6개 단체의 선점 효과는 청첩 소속 단체들과 비교해 절대적이다.

청첩의 공신력은 교육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6개 단체 역시 청첩 회원단체이며, 파리미터청소년협회와 청소년교화연합회등 교계 단체인 청첩 소속단체다.

최근 교계의 한 청소년단체의 지부가 '공문'에 단체명을 명기해 줄 것을 해당 교육청에 정중히 건의했던 일은 '잘못된 공문'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청소년단체들의 입지를 반영해 주고 있다.

이에 대해 청소년 포교 관계자들은 "교육청은 공문에서 청소년들이 가입해도 좋은 건전한 단체 모두를 소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gobacou@buddhaphia.com)

이렇게 들었다

뇌물 "법답지 않은 재물 구하지마라"

이종기 변호사 수임 비리사건에 이어 각종 뇌물수수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월 충북대병원 등 국내 12개 종합병원의 병원장과 관계자들이 의료장비 매입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는가 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청장이 구속된지 보름만인 10일 국장급 1명에 대해서도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시 때, 어느 날 많은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것을 바른 생활이라 하는가? 무리하게 구하지 않고, 분수를 알아 만족할 줄 알며, 남을 속이는 사된 직업으로 생활하지 않고 다반 법답게 재물을 구하지 법답지 않은 것은 따르지 않는 것을 바른 생활이라 말한다."

염치있게 사느라고 비록 고생을 겪을지언정, 義를 위해 청백하며 부끄러움을 피해 간사스럽지 않으면, 이것은 깨끗하게 사는 것이다.

'곧은 마음(直心)'은 곧 보살의 정토나, 보살이 성불할 때에 아첨하지 않는 증상이 그 나라에 와서 태어나게 된다.

나라의 중신(重臣)이 직무를 태만히 하면서 사리만 생각하고 부지런히 뇌물을 챙기면 나라의 기강이 급속히 무너진다. 백성이 서로 속이고, 장자가 악자를 때리고, 귀족이 서민을 학대하고, 부자가 빈자를 착취해 도 법의 제재가 없으면 도덕이 무너지고 혼란이 극에 달한다.

3각도의 고통이 되는 근본은 탐욕이 으뜸이고, 피

안(彼岸)에 이르는 6가지 가운데 힘따라 도와 주는 것이 제일이다. 아끼고 탐내는 것은 착한 길을 막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배풀어 주는 것은 나쁜 길을 막는다.

너희들은 마땅히 알아야 한다. 한 오리의 털과 한 개의 겨자알이라도 모두가 중한 과보가 있나니 차라리 손을 끊을지언정 자기 재물이 아닌 것은 취하지 말고 항상 청렴한 마음을 갖고서 선군을 키워야 하느니라.

차라리 도를 지키다가 빈천속에서 죽을망정, 도에서 벗어난 짓을 하며 부귀를 누리려는 일이 없거라.

도를 지키기 스스로 결단하여 몸을 바르게 지니고 행동을 올바르게 하며, 여러 선을 더욱 많이 짓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신을 닦고 몸을 깨끗이 하여 마음의 때를 씻어내며, 언행이 진실하여 겉과 속이 어울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열린마당

조계사 발전방향 공청회

신도회 주체적 의견결집

임동현 (조계종 포교사단 사무국장)

조계사의 정상화 여부에 따라 98년 종단사태는 새로운 발전의 계기로 인식되거나, 퇴락의 길로 들어서는 원인으로 인식될 것이다.

또 사찰운영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종단도 조계사가 종단의 직할사찰인 만큼 조계사의 변화를 추동하고 책임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신행 모범사찰 표준제시

이종찬 (조계사 청년회장)

신행단체의 제자리 찾기를 위해서 다음의 여섯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조계사 신행단체로서의 모든 회원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조계사 신행단체들은 대사회적 문제에 있어 주인공 의식을 갖고 지켜봐야 하며, 시민발언대로서의 조계사 광장 활용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문화공간으로 개방해야

유정길 (불교한글교육원 사무국장)

조계사는 한국사회의 도덕적인 중심, 정신적 권위의 상징이 되어야 한다. 불자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지역인 및 직장인들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열려 있어야 한다.

또 녹색가게, 생활협동조합 운동, 청소년 상담실, 탁아시설, 비디오 정보실, 지역내 자원봉사 인력은행, 지역화해 발행, 불교박물관 등의 운영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조계사가 삶을 풍요롭게 하는 평생교육의 장으로 변모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조계사의 수행과 신행생활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신심과 수행의 기풍과 내용이 없으면 단순히 한 기업체의 미래 경영전략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토론내용 '신도교육프로 활성화' 등 주장

활을 실현하는 중심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웅정씨(불교바로세우기 범불교재가 연대 사무처장)는 조계사는 하나의 단 위사찰이 아니라 조계종을 대표하는 총본산으로서의 위상에 맞는 운영방향을 결정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재가불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

김관태씨(조계종 포교원 연구과장)는 조계사가 포교와 진법도량으로서 거듭 나기 위해 조계사불교대학의 내실있는 운영과 교육 이수자를 중심으로 한 수 계와 신도등록 및 조직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 봉사활동, 시민운동 참여 등으로 사찰의 기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전라도 지역에 이어 서울·경기도가 타종교에 비해 불교세가 미약하다고 지적하고, 조계사가 포교 취약지역인 분당, 일산, 광천 등 신도시는 물론 수도권(인천, 경기)의 전반적인 포 교상황을 활성화하는 방안(포교당 및 분원 설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회에서 박상희씨(조계종 봉축기획단 간사)는 신도들의 신심고양과 역량 증대를 위한 신도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신회 권씨(자비의 전화 사무국장)는 12년 동안 고쳐화된 신도들의 의식구조 전환, 도량법회기 불사과정에서 아끼던 기형적 경영구조의 정상화, 신심인식자와 기존신도와의 신뢰회복 형성 등을 99년 조계사의 숙제로 지적했다.

문의 354-6204 전국서점에 있습니다



박찬호, 20승할까? 못할까?



30분만 따라하면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설날, 온가족이 모여 함께 따라해 보세요.

■ 벽산스님(법명: 道日) 약력 1968 평안도 함흥시 출신. 1973 부산 법서사(현 대명사)에서 법도. 1975-76 통도사/봉선사 강원 대교과수. 1977 동국대 석좌승려 원장 운허 대종사 법학박사 수취. 1977-86 서울 상례동 자은 포교당 주지. 부산 청수시/소명사/화연사 주지. 현 함천 일성암 주지. 부산 금정구 생원 신원 주지.

「벽산스님 따라하기」 50쪽만 따라읽으면 누구나 쉽게 괘를 뺄 수 있습니다.

▶ 6가지 괘는 법, 법은 법, 해제이므로 괘는 법, 비록 괘로 괘는 법, 동전으로 괘는 법, 생활속의 숫자(이따호수, 주일등목연호, 차표 등)로 괘는 법, 일진, 년, 월, 시로 괘는 법. ▶ 14가지 항목별 괘들이기에 투기에서 2개월간 수요일을 노려라, 화일, 시를 주시어 좋다. 시월/해문 다시 재배해서 어떤 일까지도 있는 상태, 고사시, 원고시, 기운을 지을 연구하고 7개월간 정진수행이 꼭 필요한 시월이다. 부동상태, 다른 어떤 어떤 등도 정진과 관련이 없다. 3개월 정진하면 좋은 기운이 이루어진다. 시월, 새해인 만큼 위해 시월이 좋다. 소자본으로 재벌 부를 지어낸 생활을 하게 한다. 자신감을 가져라.

신국문상·하천/값각권 12,000원

10,000명의 실천상담을 통해 한국적 상황에 맞게 풀어쓴 생활주역

30분만 보면 침쟁이 뺄친다

벽산스님 따라하기